

# 한은, 금리인상 속도조절 나서나... '베이비스텝' 가능성 ↑

美 금리 격차 여전... 인상 불가피  
연준, 긴축 속도조절 움직임 보여  
일각선 물가안정 방점 빅스텝 분석

한국은행이 오는 24일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베이비 스텝'(한 번에 0.25%포인트 금리인상)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개월 만에 다시 5.7%로 높아진 데다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가 1.0%포인트(p)까지 벌어진 만큼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한은이 그동안 이어왔던 빅스텝 기조를 바꿔 베이비스텝을 밟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은이 이번 금통위에서 금리인상을 단행할 경우 역사상 첫 여섯번(4·5·7·8·10·11월) 연속 인상이다.

한은이 최근 공개한 지난달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6명의 금통위원 가운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1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데 주상영 위원과 신성환 위원은 기준금리 0.25%p 인상을, 나머지 4명은 0.5%p 인상을 주장했다.

베이비스텝을 주장한 한 위원은 "여전히 목표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인플레이션을 감안해 당분간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해 나가되, 점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경기와 고용을 과도하게 수축시키지 않으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근원물가 상승률을 2% 내외

로 안정시키기 위한 기준금리의 상단은 3%대 초반 정도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은이 물가 안정에 방점을 둘 경우 세 번째 빅스텝(0.5%p 금리인상)을 단행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미국 내에서는 기준금리를 최소 5.0%에서 최고 7.0%까지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내 통화 긴축을 선호하는 대표적인 인사로 알려

진 볼러드 총재는 최근 캔터키주 루이빌에서 열린 연설 행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인플레이션을 둔화시키기 위해 연준은 정책금리를 최소 5~5.25%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과거에는 금리 수준을 4.75~5%라는 견해를 얘기한 바 있지만, 최근 분석에 따르면 이제는 최소 5~5.25%로 인상해야 한다"고 전했다.

금융권에서는 지난달 빅스텝의 근거

였던 물가와 환율이 소폭 안정된 데다 레고랜드 사태로 자금시장 경색 위험도 남아 있어 이번 금통위에서는 한은이 금리를 큰 폭으로 올리기 어려울 것이라 분석된다.

이달 한은이 베이비스텝에 나서면 한국(3.25%)과 미국(3.75~4.00%)의 기준금리 차이는 0.75%p로 좁혀진다. 하지만 12월 연준이 최소 빅스텝만 밟아도 격차는 1.25%p로 다시 확대된다. 연준이 시장의 전망대로 내년 상반기까지 기준금리를 5% 이상으로 더 끌어올릴 경우 한은도 비슷한 시점까지 금리를 계속 인상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관련 전문가들은 한국은행이 5%대 고(高)물가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내년 초까지 금리를 추가로 1~2회 올리고 인상을 멈출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은 금통위는 2023년 총 8차례(1·2·4·5·7·8·10·11월) 열린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 금융위 '보험규제 개선방안' 발표

### 물품서비스 최대 20만원... 화상통화 가입 허용

동물 등 특화보험 자회사 허용  
파생상품의 거래한도 폐지

앞으로 기존 보험사는 동물보험 등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를 자회사로 설립할 수 있게 된다. 보험가입시 1회 이상 소비자를 만나 상품설명을 해야 했던 의무도 화상통화로 가능해진다. 보험가입시 제공하던 물품서비스도 현행 3만원 이내에서 20만원 이내로 확대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신상훈 금융위 보험과장은 "고령화와 함께 MZ세대(1981년부터 2010년에 출생한 세대)가 주력 수요층으로 부상하고 있는 만큼, 규제를 개선해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 ◆보험사, 1사 1라이선스 규제 완화

금융위는 우선 1사 1라이선스 규제를 완화해 보험사도 동물보험 등 소액단기 전문보험회사를 자회사로 둘 수 있게 했다. 1사 1라이선스 규제는 1개 금융그룹이 각각 1개의 생명보험회사와 손해

보험회사만 보유할 수 있도록 제한한 것을 말한다. 보험설계사도 교차모집제도가 완화돼 기존 모집회사 외에도 자회사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온라인 영업이 제한된 기존보험사는 모바일과 홈페이지 등을 활용해 영업이 가능하다.

#### ◆화상통화로 보험가입 가능

금융위는 또 화상통화를 통한 보험가입을 허용한다. 지금까지 대면보험은 1회 이상 소비자를 만나 중요사항을 설명하고, 비대면 보험은 전화를 통해 표준상품설명한 뒤 음성내용을 녹취·보관해야 했다. 화상통화로 상품설명의무를 이행할 경우 소비자와 만나 상품을 가입한 것으로 인정한다.

전화로 보험을 가입할 경우 휴대폰 화면을 통해 표준상품설명서를 안내하면 음성내용 녹취의무는 제외된다.

보험가입시 제공하던 물품·서비스 가격도 3만원에서 20만원 이내로 확대한다. 현재 보험사들은 보험가입시 보험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물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주택

화재보험 가입시 가스누출 및 화재발생 감지장치를 제공하고 자전거 보험가입시 충돌센서가 내장된 스마트 자전거 후미등을 제공한다. 금액제한으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웠던 부분을 개선해 소비자에게 합리적으로 이익이 되는 물품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설명이다.

#### ◆보험사, 경영자율성 제고

이밖에도 연금보험에 맞는 상품규제 체계도 만든다. 앞서 금융위는 연금보험을 저축성보험에 포함하고, 납입완료 시점까지 해지환급금이 납입원금을 초과하도록 설계해 중도해지자가 수령하는 금액을 보장했다.

파생상품의 거래한도도 폐지한다. 현재 보험사는 파생상품 거래한도가 총 자산의 6%로 제한돼 있다. 내년부터 새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가 도입될 경우 보험부채에 대한 시가평가가 도입돼 금리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 파생상품의 거래한도를 폐지해 시장상황에 맞게 자산운용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사유리기자 yul115@

## '세계 최고가' 홍콩 집값도 붕괴 올해에만 20% 이상 '수직낙하'

### ● 차이나 뉴스 & 리포트

금리인상, 코로나 팬데믹 등 영향  
골드만삭스, 내년 30% 하락 전망

세계 최고가라는 홍콩 집값의 붕괴가 겪었다. 미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이 커진데다 팬데믹이 길어지면서 올해만 집값이 20% 넘게 급락했다. 하락세로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이후 최악이다.

20일 부동산업체 미드랜드리얼티에 따르면 홍콩의 사틴과 원완 지역에 위치한 일부 아파트 단지의 평균 가격이 작년 12월과 비교하면 20% 이상 하락했으며, 연말까지 하락폭은 25%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미드랜드리얼티의 새미포 홍콩·마카오 부문의 최고경영자(CEO)는 "미국이 계속해서 금리를 인상하고 있고, 불확실한 경제전망도 집값을 끌어내리고 있다"며 "실제 하락폭은 통계로 나타난 것보다 훨씬 더 가파르다"고 전했다.

홍콩 집값이 연간 기준으로 하락한 해는 지난 2008년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에 15% 급락한 바 있다. 올해는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서는 것은 물론 하락폭으로 보면 금융위기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미드랜드가 조사한 지역 20곳에서 모두 올해 들어 10개월 내내 주택 가격이 하락했고, 16곳은 가격 하락폭이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압류 부동산은 급증했다.

홍콩의 압류 부동산 수는 지난 반년간 꾸준히 늘면서 이달 4일 기준 226건으로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업계에서는 내년 1월 말 이후에는 1000건을 넘어설 것으로도 보고 있다.

지난달 추가 인지가 부각되는 주택 거래 건수는 130건으로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추가 인



홍콩의 고급 주택가. /SCMP

지세 총액도 1억5950만 홍콩달러로 역시 최저치다.

팬데믹에 따른 통제가 3년 가까이 이어지면서 경기는 침체됐고, 이민은 급증했다. 이와 함께 치솟은 금리도 집값 하락을 부추겼다.

홍콩의 중앙은행으로 볼 수 있는 홍콩금융관리국(HKMA)은 이달 초 기준금리를 3.5%에서 4.25%로 인상했다. 미국과 같이 4번 연속 자이언트스텝을 밟으면서 홍콩의 기준 금리는 2008년 이후 14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올랐다. 홍콩은 미국 달러당 7.75~7.85 홍콩달러 범위에서 통화 가치가 움직이도록 달러 페그제를 채택하고 있어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따라갈 수밖에 없다.

센터라인 루이스찬 아시아태평양 부회장은 "홍콩 주택 시장에 경보가 울리고 있다"며 "홍콩의 경제성장률 하락과 부동산 거래량 급감, 미분양 등을 감안하면 올해 주택 가격 하락폭은 15%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내년 전망은 더 어둡다. 골드만삭스는 내년까지 홍콩 집값이 30% 하락할 것으로 점쳤으며, 모건스탠리와 HSBC 등 글로벌 투자은행(IB)들도 일제히 집값 하락에 베팅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 고용부 "노사 안정 노력... 범정부적 대응"

>> 1면 '화물차에 학교...'서 계속

서울 지하철 운영사인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정부와 서울시의 인력감축 계획을 비판하며 오는 30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안전 사각지대인 지하철에 안전인력을 늘려야 하는데 서울시는 인원 감축과 외주화를 통해 대규모 구조조정을 강행하려 한다"

며 목소리를 높였다.

30일 총파업 돌입하면 서울 지하철 1~8호선 운행 횟수는 절반 가량 감소해 출퇴근 시민들의 불편과 혼란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이어, 전국철도노조도 정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인력 총원 등을 요구하며 다음 달 2일 전면 총파업을 예고했다.

철도노조는 최근 경기의왕시 오봉역

에서 코레일 직원이 열차에 치여 숨지면서 현장 내 안전 담당 인력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노동계의 연이은 총파업으로 앞으로 노사 관계가 더 녹록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고용부 관계자는 "노동계가 이번 주부터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어 생산·물류 차질 등 여러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고려할 때 노사관계 안정에 노력하고, 범정부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